

사회

광주서도 성추행 사건 잇따라

20대 초등학교 운동장서 음란행위·골목길 유인 못된짓도

학부모들 학교주변 치안부재에 불안

최근 광주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대낮에 여자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이후 경찰과 교육 당국의 방범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되레 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28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중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광주 모 대학교 3학년 김모(24)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초등학교 운동장 구렁대에 올라가 광주 모 중학교 3학년 K(15)양 등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양 등은 휴일 교외에 가던 중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광주시 동구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도 최근 두 차례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7일 오전 8시께 동구 소태동 모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가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끌고 가 신체의 특정부위를 만지라고 강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A

(12)양과 사촌동생인 B(9)양은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따라오라"고 하자 무심코 뒤를 따르다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학생은 A양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달아났지만, A양은 당시 충격으로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성추행 관련 가정통신문을 보내

는 한편, 조만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학교 학부모 김모(여·42)씨는 "학교 바로 앞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김수철 사건 이후로도 학교 주변의 치안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23일 오전 7시20분에는 이 학교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차모(39·광주시 동구 지원동)씨가 출근하는 C(여·25)씨 앞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가 입건됐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에는 화정동의 또다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모(39)씨가 초등학교 6학년 L(11)군에게 "아는 누나를 데려오라"며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였으나, 아무런 제지 없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학교 운동장까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폐휴대폰 모아 이웃돕기

2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직원들이 구청 회의실에서 지난 5월부터 수거한 폐휴대폰 4000여개의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수거 휴대폰은 재활용 기관에 판매해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도울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7일 오전 10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모 아파트 15층에서 김모(19)군이 난간에 앉아 투신자살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1층 바닥에 에어 매트 등을 설치하고 2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김군을 잡으

먼저 간 아내 그리워

부인사망 상심 80대 하루만에 음독 자살

고혈압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아내가 숨지자 하루 만에 남편이 음독 자살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8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모 아파트에 사는 방모(85)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극약을 마시고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방 할아버지는 2년 전부터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고혈압·당뇨 치료를 받아오던 아내 이모

(83) 할머니가 지난 27일 오전 10시20분께 숨지자,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 할아버지는 집 안방에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엄마따라 간다. 더 이상 부담되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방 할아버지는 65년 전 아내와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으며 주변에 금슬 좋은 부부로 알려졌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엄마 병원비 걱정

처지비관 10대 아들 아파트서 자살 소동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의 병원비를 고민하던 10대 아파트 고층 난간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2시간 만에 귀가했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모 아파트 15층에서 김모(19)군이 난간에 앉아 투신자살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1층 바닥에 에어 매트 등을 설치하고 2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김군을 잡으

로 돌려 보냈다. 응급공인 김군은 누나 3명과 함께 지난 5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군이 한 달에 버는 150만원으로 다섯 가족이 생활하던 중 병원비 2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059) 김종두



보성군 의원 입지자 영장

보성경찰은 28일 6·2 지방선거 때 유권자에게 돈을 준 기초의원 입지자 김모(65)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7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후보 경선 이전인 지난 4월 25일 보성군 특량면 도로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박씨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동방신기 멤버들 SM상대 30억 소송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본명 김재중), 시아준수(김준수), 막기유천(박유천) 등 3명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진실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 멤버는 "SM 측이 얻은 수입은 무효인 전속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10억원씩 30억원을 멤버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1인당 100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

○-이들 멤버는 지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일부를 받아들이자 SM은 이들을 상대로 "멤버들이 활동을 중단해 생긴 손해액 2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으로 맞대응. /연합뉴스

지적장애여성 집단 성폭행 보름 넘도록 '미적미적'

가족들 "경찰 능장 수사" 항의

20대 지적 장애여성이 평소 안면이 있는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보름이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은 "능장수사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비장애인인 A(32)씨는 장애인 2명과 함께 지난 11일 밤 10시께 광주시 동구 학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같은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B(여·

24·지적장애 3급)씨를 차례로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B씨 가족들은 A씨 등 3명이 11일 밤 동구 소태동의 한 노래방에서 어울리던 중 동석한 B씨를 화장실로 불러 한 차례 성폭행 한 뒤 일행들과 함께 B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못된 짓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B씨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B씨 가족들은 경찰의 조사가 늦어지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B씨의 언니는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해자의 진술도 반복돼 성폭행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부녀자 상대 강도 10대 2명 영장

광주동부경찰은 28일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한 김모(18)·황모(18)군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27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장동 모 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심모(여·63)씨를 폭행한 뒤 9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광주 모 직업훈련원 친구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

허위서류로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 편취

양식어민 등 6명 입건

여수해양경찰

여수해양경찰은 28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51)씨 등 양식어민 4명과 설비업체 대표 문모(56), 시공업자 이모(59)씨 등 6명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 어민들은 지난해 3~6월 고흥군이 시행하는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기부

담금 50%를 내지 않으려고 허위 서류를 꾸며 1인당 2500만~5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문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 등 어민들에게 실제 소요된 사업비보다 부풀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준 혐의를, 이씨는 어민과 설비업체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2011학년도 -

대 학 편 입

매콤방학을 잡아라! 개강 7월 1일

수도권 주요대학 편입합격 대부분 - 이름방학이 당락을 좌우했다.

편입영어

- 대학합격의 절대적인 평가요소인 편입영어
- 이론과실전 - 기출문제 사근사근
- 실화과형성 - 유망별 문제풀이

편입수학

무궁해 편입합격의 열쇠 = **매콤방학** 이론/문제풀이 = 편입수학의 **매콤방학** 이/미/기/어/문/수/학/의/합/격/의/열/쇠

TEPS대비반

- TEPS 대비반 2개월간 4주씩 10주씩 편입영어 핵심 TEPS에 대해
- TEPS대비반 전문대입용 TEPS에 대해
- TEPS 대비반 10주
- TEPS 대비반 10주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omyoung.co.kr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문의) 222-8088, 227-8088